



세대 간 연대인식 제고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향성 모색:

노인세대에 대한 고정관념과 정서, 도덕기반, 연령주의, 미디어 접촉 변인을 중심으로*

손위수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 박사과정**

김정은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 박사과정***

한미정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본 연구에서는 BIAS Map(Behaviors from Intergroup Affect and Stereotypes Map)을 바탕으로 노인세대에 대한 고정관념과 정서, 한국적 도덕기반, 연령주의, 미디어 접촉 등의 변인을 활용해 세대연대 인식에 미치는 선행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혔다. 전국 만19세~59세 성인남녀 30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령주의와 미디어 접촉은 노인세대에 대한 고정관념(유능함과 따뜻함)과 노인세대에 대한 정서적 반응(동정, 존경, 질투, 혐오)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세대에 대한 정서는 각 정서적 반응에 따라 세대갈등인식, 노인세대의 기여인식,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등을 포함한 세대연대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해반대, 차별반대, 그리고 혐오거부와 같은 도덕기반 변인들의 경우, 공히 세대연대 인식 변인의 노인세대의 기여 인식 차원에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사회의 세대 간 갈등 해소에 작용할 수 있는 유효한 변인을 찾아내고 세대 간 연대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소통의 방향성을 탐색했다.

KEY WORDS 세대연대 · 세대갈등 · 노인복지 · 노인기여 · 고정관념
· 연령주의 · 도덕기반 · 미디어 접촉

* 본 연구는 한양대학교 2021학년도 인문·사회·예체능 전문학술논문 지원사업 연구비를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주저자, yushu@kakao.com

*** 공저자, kimje114@naver.com

**** 교신저자, mjhan909@hanyang.ac.kr

1. 서론

최근 한 조사회사에서 실시한 세대 간 갈등 인식에 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한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81%로 나타났고, 그 가운데 '매우 심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0%로 세대 간 갈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리서치 여론조사본부, 2022). 한편, 이러한 세대 간 갈등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응답도 43%였고, 세대 간 갈등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높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복지차원의 재정적 부담도 증가하고 젊은 세대와의 일자리 경쟁도 은연중에 발생하고 있는 사회구조적 상황이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노인복지법, 기초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법률에 따라 한국에서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한국의 노령인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정영효, 강진규, 2022), 2030년에 65세 이상인 노인 1명을 부양하는 15~64세인 생산인구의 수는 3.6명, 2070년에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것이라는 전망이다(김민지, 2022). 또한 각 세대는 같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사건을 겪으면서도 상이한 가치관을 표출하는 양상을 보이고 이러한 가치관 차이는 정치적, 경제적, 이념적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이선희, 김미리, 정순돌, 2019). 예를 들어 노인세대를 편취하는 언어적 표현들이 젊은 세대의 소통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문화적인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젊은 세대가 갖는 노인 세대에 대한 편견, 부정적인 인식 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세대 간 갈등도 일상적인 영역에서 심화되고 있다(오현정, 김정환, 2021). 또한 국제적으로 코비드 팬데믹, 기후위기, 전쟁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일자리 부족, 물가인상, 소득양극화 문제 등으로 세대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김명수 외, 2023).

전통적으로 동양권 국가는 서양 국가들보다 효(孝)사상을 바탕으로 고령자에 대한 예의와 존중 의식이 높다고 여겨져 왔으나 최근의 상황을 살펴보면 빠른 고령화로 인해 오히려 동양권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연령주의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오현정, 김정환, 2021). 노인세대에 대한 타 세대의 고정관념과 연령주의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유발하고, 그들에 대한 차별과 거부를 사회적으로 정당화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오현정, 신경아, 2019). 따라서 노인세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는 과정에 관여하는 우리나라의 연령주의나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같은 변인들의 구체적인 역할이나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한편 세대 간 갈등을 이해함에 있어서

도덕관의 영향력도 중요한 고려대상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에 대한 존중과 권위나 권력적 관계를 존중하는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류원식, 이준웅, 2017), 연장자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기본적인 미덕으로 인식되어왔다. 따라서 도덕심에 근거한 이러한 가치가 노인세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인세대를 비롯한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20~59세의 연령집단에 포함된 여타 세대의 노인세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갈등에 작용하는 사회·문화적 변인들을 탐색해 이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세대 간 연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소통의 방향성을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BIAS Map(Behaviors from Intergroup Affect and Stereotypes Map)을 바탕으로 노인세대에 대한 고정관념과 정서, 한국적 도덕기반, 연령주의, 미디어 접촉 등의 변인을 활용해 세대연대 인식에 미치는 선행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세대 간 연대감을 형성하는 데 유효한 요소를 찾고 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노인 복지정책의 실행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소통의 실무적인 함의를 탐색하고자 했다.

2. 이론적 배경

1) 세대연대 인식

199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의와 연결되었으며,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부담과 파급효과도 세대 간 형평성의 관점에서 조망되기 시작했다(황선재, 2022). 세대연대는 각 세대가 다른 세대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며, 서로 다른 경험을 한 세대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추구한다는 의미이다(최유석, 오유진, 문유진, 2014). 이러한 세대연대 인식은 세대 간 충돌 없이 형평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대연대의 반대 개념은 세대 갈등과 세대 단절 등이다. 세대연대의 반대 개념은 세대갈등, 세대단절 등이다. 각 세대는 같은 사회, 문화, 경제적 사건과 경험을 공유하면서도 상이한 해석과 가치관을 형성하며, 각 세대가 가진 가치관의 차이는 세대 차이로 명명된다(이선희 외, 2019). 이러한 차이는 정치적, 경제적, 이념적 갈등으로 발전해 왔다.

한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인세대에 관련한 연구의 키워드를 살펴본 오민정(2019)의 연구에 의하면 1996년~2004년 기간은 ‘부양’, ‘서비스’, ‘시설’, ‘고용’, ‘프로그램’, ‘치매’, 2005년~2009년 기간은 ‘교육’, ‘서비스’, ‘자산’, ‘참여’, ‘재정’, ‘부양’, 2010년~2014년 기간은 ‘은퇴’, ‘주택’, ‘서비스’, ‘가족’, ‘노동’, ‘보험’, 2015년~2018년 기간은 ‘건강’, ‘소득’, ‘참여’, ‘재정’, ‘보험’, ‘노동’의 키워드로 노인세대 연구의 키워드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노인복지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으며 2010년 이후는 노인의 경제 문제, 은퇴 문제, 일자리 문제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접근을 다루는 연구가 많아졌다. 이러한 연구의 추세는 한국사회의 노인세대에 있어 경제적 고려와 노인복지정책의 중요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복지적 차원에서의 노인세대에 관련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온 반면 세대연대의 관점에서 노인세대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경제활동을 통해 노인세대 지원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젊은 세대가 감지하는 연령주의와 같은 사회문화적 인식,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노인의 이미지, 노인세대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정서적 반응,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도덕성 기반 등, 문화적 특성이 내재된 변인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세대연대 인식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최유석(2014)은 유럽위원회의 조사를 바탕으로 세대 간 연대의식을 세대갈등 인식, 노인의 기여에 관한 인식, 노인복지정책 인식 등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한 바 있다. 첫 번째 차원인 세대갈등 인식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정치·경제 영역에서 국가 재정과 자원배분을 둘러싼 청년세대와 노인세대 간의 대립과 갈등에 관한 인식을 의미한다(최유석, 오유진, 문유진, 2015). 황선재(2022)는 세대갈등의 문제를 크게 경제, 정치, 사회문화 영역으로 구분했는데, 경제영역에서는 주로 공적연금, 일자리, 의료비, 복지지출 등의 연구이고, 정치영역에서는 세대 간 정치 관념과 정치행동 등의 연구, 그리고 사회문화 영역에서는 세대 간 문화 격차, 가치관 격차 등 연구로 나누었다. 특히 정치영역에서는 격렬한 세대갈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성경룡, 2015; 최선, 2020). 세대연대는 고령화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세대갈등 및 세대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기반이 될 것이다(원영희, 한정란, 2019). 따라서 본 연구는 세대갈등 인식을 해소할 수 있는 영향요인을 검증하고 세대연대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을 찾아보았다.

세대연대 인식의 두 번째 차원은 노인세대의 기여에 대한 인식으로, 노인세대가 제공한 가족, 사회,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기여로 규정할 수 있다(최유석 외, 2015).

노인은 ‘사회복지 수혜자’ 내지 ‘사회적 약자’로만 여겨 온 부정적 시각을 뛰어넘어, 은퇴 이후에도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재사회화를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자’로서 바라보는 시각은 반영한다(이현주, 송민경, 2021). 노인세대에 대한 시각의 전환은 노인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로 이루어졌고(이금룡, 2019; 이은자, 최유미, 2016; 이현주, 송민경, 2021), 노인세대의 자원봉사활동은 세대 간의 갈등이나 편견을 해소하는데 바람직한 효과를 창출하며 바람직한 ‘어르신 상’을 구축한다(강민연, 김춘경, 2010). 노인세대의 자원봉사 활동뿐만 아니라 노인의 가족 돌봄, 노인 일자리를 통한 경제 창출 등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노인세대의 기여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세대연대 인식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실증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대 간 연대인식의 중요한 한 축은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이희성, 권순호, 2020; 최혜지, 이형미, 정순돌, 2018; 함재봉, 손경희, 2020). 사회통합과 안정을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부의 지원은 사회적 재분배 정책(Redistributive policy)을 통해 이루어지고 정책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이 정책 수혜집단에 대해 긍정적, 호의적 태도를 갖는 것은 효과적인 정책집행의 필수요소이다(오현정, 김정환, 2021). 노인복지정책의 실행으로 인해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가 감소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으며, 노인복지가 확대됨에 따라 여타 경제인구집단의 부담이 가중될 것에 대해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8). 반면 노인복지정책은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노인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남이, 남보영(2021)에 의하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세대의 소득수준 증가와 빈곤감소의 경제적 측면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우울 감소,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향상 등 정신건강 차원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노인세대에 관한 정책은 경제 측면과 개인건강 측면에도 중요한 복지정책이고 사회구성원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인식은 세대연대에 대한 개념구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표이고 경제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다른 세대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세대연대 인식의 차원으로 세대갈등 인식, 노인세대 기여에 관한 인식,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인식 등 3가지 요인으로 구성하고 노인복지법 등에서 규정하는 65세 이상의 연령집단을 노인세대로 규정해 세대연대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검증했다.

2) BIAS Map(Behaviors from Intergroup Affect and Stereotypes Map)과 세대 연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에 대해서 구성원 간의 차이점을 인식하지만 외부집단에 대해서는 그 구성원에 대해 일반화를 하는 경향이 있다(Quattrone & Jones, 1980). 이러한 외집단 동질성(Out-group homogeneity)은 사람들이 어떤 대상을 평가할 때 대상이 속한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기반으로 평가하는 경향에서 비롯된다(Fiske et al., 2002). 피스케와 동료들(Fiske et al., 2002)은 이러한 현상을 고정관념 내용 모형(SCM: Stereotype Contents Model)을 통해 설명하고, 사회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지적 특성인 유능함(Competence)과 사회적 특성인 따뜻함(Warmth)의 2차원으로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했고 2개의 차원은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유능함과 따뜻함은 ‘대상 집단의 목표가 나에게 잠재적 위해 혹은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대상 집단이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Fiske et al., 2002). 예를 들면 자신의 집단에 대해 경쟁자로 인식되면 따뜻함이 부족한 사람으로 고정관념화 되고 협조적인 집단으로 인식되면 따뜻한 사람으로 고정관념화 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유능함은 똑똑하고, 효율적이며, 능숙한 특성을 의미하고 따뜻함이란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배려심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Aaker, Vohs & Mogilner, 2010; Scott, Mende & Bolton, 2013).

고정관념 내용 모형을 바탕으로 커디와 동료들(Cuddy, Fiske & Glick, 2007)은 사회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집단에 대한 행동경향의 관계성을 제시한 BIAS Map(Behaviors from Intergroup Affect and Stereotypes Map) 모형을 제안했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 BIAS Map에 의하면 특정 집단에 대한 사람들의 행동은 긍정적 행동(도움, 협력)과 부정적 행동(공격, 무시)으로 구분되고 행동 방식은 그 집단에 대해 유능함과 따뜻함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즉, 경쟁 관계로 보이는 집단에게는 차가운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반면, 협력적으로 보이는 집단에게는 따뜻한 이미지가 형성되고, 높은 지위라고 인식된 집단에게는 유능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반면, 낮은 지위로 인식된 집단에게는 무능한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것이다(Fiske, Cuddy & Glick, 2007). 커디 등(Cuddy et al., 2007)은 특정 집단에 대해서 유능함과 따뜻함 차원의 평가와 아울러 존경, 혐오, 동정, 질투의 정서도 동반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뜻함 차원의 고정관념은 능동적 행동을 유발해 공격행동 혹은 도움행동 경향을 증가시키고 유능함

차원의 고정관념은 수동적 행동을 유발하며 무시행동 혹은 협력행동 경향을 증가시켰다.

BIAS Map을 적용한 다양한 연구를 살펴보면, 콘스탄틴과 콰드라도(Constantin & Cuadrado, 2020)는 스페인에서 두 이민자 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고정관념, 감정, 그리고 의도적인 행동 사이의 관계를 조사했다. 이민자에 대한 고정관념은 도덕성, 사교성 및 유능함으로 분류되었는데 유능함은 협력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인 경우, 특정 이민자 집단에 대한 존경이 높을수록 도움행동과 협력행동이 높아지고, 혐오가 증가함에 따라 공격행동과 무시행동도 증가했다. 네베스 등(Neves, Pestana & Giger, 2022)은 돌고래와 상어 보존에 대한 태도 및 행동 경향을 분석했는데, 응답자들은 상어에 대해 '위협적 고정관념'(높은 능력과 낮은 따뜻함)을 가진 것으로 평가한 반면 돌고래에 대해서는 '보호적 고정관념'(높은 능력과 높은 따뜻함)을 가진 것으로 구분했다. 한편 상어집단에 대해 따뜻함 인식이 증가하면 상어에 대한 더 긍정적인 인식과 보호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고려해보면 노인 세대에 대한 유능함과 따뜻함과 같은 고정관념과 관련된 정서적 반응은 여타 세대의 노인집단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및 정서, 그리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행동 의향을 연구한 조인숙, 김도연(2017)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정서는 노인에 대한 행동 유형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대학생 응답자들은 노인을 유능하다고 인식할수록 노인에 대한 협력행동 경향이 증가하는 반면, 무시행동은 감소했다. 또한 노인을 따뜻하다고 인식할수록 도움행동과 협력행동은 증가하고 공격행동과 무시행동은 감소했다. 노인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반응의 경우, 존경과 동정은 도움행동과 협력행동을 증가시키고, 혐오는 공격행동과 무시행동을 증가시켰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노인을 대한 행동의도를 예측하는데 BIAS Map에서 제시하는 고정관념과 정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노인세대에 대한 고정관념과 정서가 노인에 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도 이루어졌다. 전국 성인남녀 1,5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지연, 한경혜(2017)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노인과 시·공간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뉴스 기사 속 노인의 특성 및 기사의 논조가 노인 태도, 정서, 그리고 고령친화정책에 대한 태도와 지지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오현정, 김정환(2021)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정서 중에 공감이 고령친화정책에 대한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공감은 상대방이 처한 상황에 대한 가변적인 반응

으로 정의되었는데 응답자들이 노인에 대해 공감할수록 고령친화정책 태도와 지지의도도 높아졌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노인세대보다 연령적으로 젊은 여타 세대는 자신들과 다른 외부집단으로서 노인세대에 대한 고정관념과 정서적 반응은 보이고 고정관념의 유형(유능함과 따뜻함)과 정서적 반응유형에 따라 노인세대와의 연대인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예를 들면 노인세대가 유능하다고 인식할수록 노인세대의 기여에 대한 인식도 높아질 수 있겠지만 같은 유능함에 대한 인식은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을 수 있겠다. 정서적 반응의 영향력에 있어서도 노인세대에 대해 혐오 정서가 강하다면 세대연대 인식의 정책지지 차원에 부적인 영향력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노인세대와의 세대연대 인식을 살펴본 선행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노인세대에 대한 고정관념과 정서적 반응이 젊은 연령의 타 세대와의 갈등인식, 기여차원의 노인세대에 대한 인식,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등에 어떠한 영향이 나타날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제시했다.

연구문제 1: 타 세대의 노인세대에 대한 고정관념은 세대연대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1-1: 타 세대의 노인세대에 대한 유능함 인식은 세대갈등 인식, 노인기여에 관한 인식,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1-2: 타 세대의 노인세대에 대한 따뜻함 인식은 세대갈등 인식, 노인기여에 관한 인식,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타 세대의 노인세대에 대한 정서는 세대연대 인식에 영향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1: 타 세대의 노인세대에 대한 존경은 세대갈등 인식, 노인기여에 관한 인식,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2: 타 세대의 노인세대에 대한 혐오는 세대갈등 인식, 노인기여에 관한 인식,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3: 타 세대의 노인세대에 대한 질투는 세대갈등 인식, 노인기여에 관한 인식,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4: 타 세대의 노인세대에 대한 동정은 세대갈등 인식, 노인기여에 관한 인식,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보이는가?

3) 도덕기반 변인과 세대연대 인식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공자의 유교 사상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도덕과 윤리(Moral ethics)는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근간으로 자리 잡고 있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도덕심은 중요한 가치이다. 도덕적인 행동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하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관계와 체계가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하이트와 조세프(Haidt & Joseph, 2004)는 도덕 체계를 사회생활을 통제할 수 있는 상호 연결된 미덕, 가치, 혹은 규범으로 정의했고, 도덕기반이론(Moral Foundations Theory)을 제시한 바 있다(Haidt & Joseph, 2004; Haidt & Graham, 2007). 도덕기반이론은 다섯 가지의 보편적인 도덕기반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개인의 판단, 인식, 행동을 규제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기반은 시간의 흐름과 문화적 변화를 거쳐 수정되기도 하고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문화집단 간의 도덕적 추론이나 판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Graham & Haidt, 2012).

기본적인 도덕기반은 돌봄과 위해(Care/harm, 이하 ‘돌봄’), 공정과 부정(Fairness/cheating, 이하 ‘공정’), 충성과 배신(Loyalty/betrayal, 이하 ‘충성’), 권위와 전복(Authority/subversion, 이하 ‘권위’), 고귀함과 비속함(Sanctity/degradation, 이하 ‘고귀함’) 등 5가지로 구분했다(류원식, 이준웅, 2017; Haidt & Joseph, 2004). 먼저 돌봄은 개인에 대한 배려, 양육 및 취약한 개인을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고 공정은 타인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 정의와 호혜의 미덕을 포함하고 있다. 충성은 구성원 소속된 집단에 대한 충성, 자기 존중 그리고 애국심의 덕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위는 계층적 위계에 관심을 두고 복종, 지도력, 존중 및 보호 등의 가치를 포함한다. 고귀함은 정신적, 육체적 오염으로부터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과 그러한 오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것이고 욕망을 통제하고 순결을 지키고자 하는 미덕을 포함한다(Haidt & Graham, 2007; Haidt & Joseph, 2004). 이때 돌봄과 공정은 개인의 권리와 안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개인중시 도덕기반이라고 칭하고, 충성, 권위, 고귀함은 집단의 유지와 관련되기 때문에 결속중시 도덕기반이라고 한다(Graham, Haidt & Nosek, 2009).

한편 도덕기반 개념을 적용하여 정치이념, 정치적 의견표명 및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류원식, 이준웅(2017)은 한국형 도덕기반을 개발했는데, ‘돌봄/동정’, ‘차별반대’, ‘전통/충성’, ‘혐오거부’ 등의 4개 요인을 제시했다. ‘돌봄/동정’은 하이트의

‘돌봄’과 의미가 유사하고 동정심, 살인반대, 동물학대에 대한 의견표명에 기초한다. ‘차별반대’는 차별과 불공정에 대한 반대로 규정했는데 이는 하이트의 ‘공정’과 의미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통/충성’은 ‘충성’과 ‘권위’를 결합한 개념으로 구성되었는데 한국인의 전통에 대한 존중과 집단 내 권력 및 권위 관계에 대한 존중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혐오거부’는 역겨움, 잔인함, 혼란에 대한 반대와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혐오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형 도덕기반의 제시를 통해 우리사회의 문화적 맥락이 반영된 개념화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도덕기반의 개념들이 정치적 인식이나 행동에 미치는 효과연구를 넘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도덕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젊은 세대의 도덕기반이 노인세대에 대한 태도나 인식, 그리고 행동적 경향 등에도 영향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통/충성의 도덕기반이 높은 개인은 노인세대의 기여나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도덕기반 4가지 요인을 적용해서 노인세대와의 세대연대 인식과의 관계를 규명했다.

도덕 윤리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도덕적 가치는 개인의 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보고되었다. 심과 동료들(Shim et al., 2021)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중시 도덕기반과 결속중시 도덕기반 모두 기업 무책임과 관련된 귀인, 분노 등의 감정적 반응 및 불매행동과 같은 행동의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이 높은 수준의 도덕 윤리가 불매운동 행동의도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도덕기반 가치가 친사회적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있다. 잔손과 도레팔(Jansson & Dorrepaal, 2015)은 개인의 도덕 윤리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도에 미치는 연구를 수행했는데, 도덕기반의 돌봄과 공정은 기후변화에 대응의도에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반면, 권위에 관련한 도덕 가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도에 부적적인 관계가 보고되었다. 또한, 박진수, 이민영(2019)은 대학생들의 SNS 정치참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도덕 가치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는데, 결속중시 도덕기반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 정치 효능감이 증가함에 따라 SNS 정치참여 태도가 더욱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미연과 이형석(2021)도 윤리적 의무감이 높은 개인일수록 SNS상의 공익캠페인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볼 때 도덕이나 윤리와 관련한 가치변인들이 세대연대 인식과 같은 사회적 변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도덕기반 가치들이 세대 간 연대인식에 어떤 영향력을

보이는지 검증했다. 전반적으로 도덕기반 가치를 높게 인식할수록 노인세대와의 연대 인식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돌봄/동정’의 도덕기반의 경우는 인간에 대한 동정심, 학대반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연대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차별반대, 권위존중, 혐오거부 등의 도덕기반 역시 노인세대의 기여를 인정하는 등의 연대인식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일 수 있다. 물론 세대연대 인식의 경우도, 여타 세대의 노인세대에 대한 고정관념과 정서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개인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도덕적 가치기반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반응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우리사회는 세대 간 갈등을 경험하고 있고 기성세대나 노인세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 세대 간 편견 등 복잡한 갈등적 상황과 의견 표명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도덕기반 가치의 영향력에 대한 탐색은 더욱 중요해 보인다. 특히 도덕기반 가치변인들과 세대 간 연대에 관련한 연구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이러한 가치변인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가질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타 세대의 도덕기반은 세대연대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1-1: 타 세대의 돌봄/동정 도덕가치는 세대갈등 인식에 부(-)적인, 노인기여에 관한 인식에 정(+)적인,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1-2: 타 세대의 차별반대 도덕가치는 세대갈등 인식에 부(-)적인, 노인기여에 관한 인식에 정(+)적인,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1-3: 타 세대의 전통/충성 도덕가치는 세대갈등 인식에 부(-)적인, 노인기여에 관한 인식에 정(+)적인,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1-4: 타 세대의 혐오거부 도덕가치는 세대갈등 인식에 부(-)적인, 노인기여에 관한 인식에 정(+)적인,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연령주의와 세대연대 인식

노인세대와의 연대인식을 이해하는데 있어 연령주의는 주요한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연령주의(Ageism)는 버틀러(Butler, 1969)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연령주의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구조적인 편견과 차별의 과정이고 주로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차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리되었다(Butler, 1980). 프라보니 등(Fraboroni, Saltstone & Hughes, 1990)은 연령주의가 노인세대에 대한 적대·차별적인 상태를 의미하며 노인과의 접촉을 회피하려는 정서적인 요인도 반영한다

고 보고한 바 있다. 즉, 연령주의는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부정적 감정을 다루는 BIAS Map의 변인보다는 폭넓은 차원에서의 부정적 정서나 인식을 측정하는 개념이고 노인집단에 대해 다양한 편견적 현상을 포괄한다. 연령주의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누릴 수 있는 기회와 자원으로부터 근원적으로 배제시키는 일종의 장치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는 성차별주의(Sexism)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써 기능하게 된다(박종우, 1999). 2018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조사한 연령주의 실태 연구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의 연령주의 실태는 100점 만점에 63.4점으로 노인세대에 대한 부정적 연령주의가 다소 높게 나타났고, 한국인이 미국인보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은정, 2018). 우리 사회의 연령주의는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꼰대’는 연령주의의 한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꼰대’는 은어로, ‘늙은이’를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되었고 일상적으로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은 항상 틀리다거나, 혹은 원하지 않는 조언을 받기를 강요하는 나이 많은 사람’을 일컫는 말로 통용되고 있고 노인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묘사라고 말할 수 있다(이지연, 고동우, 최경찬, 2021).

연령주의를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동심, 김주현, 주경희(2020a)는 노인에 대한 청소년의 연령주의를 고정관념(Stereotype), 노화(Aging), 차별(Discrimination) 등 3개 구성요인으로 나누었다. 고정관념은 노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노화는 나이 들에 따른 외모를 비롯한 신체적,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인식, 차별은 주로 노인에 대한 적대적인 개인적 태도나 행동으로 정의했다(김동심, 김주현, 주경희, 2020b). 연령주의의 구성요소는 학자마다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부정적 고정관념이나 편견 등의 편향적 인식이나 태도, 행위 등을 포함한다(김육, 2002). 이선희 등(2019)은 노인세대에 대한 부정적 태도 및 차별 행위와 노화에 대한 불안 및 우려 등 2개 차원을 통해 청년세대의 연령주의를 유형화했다. 이러한 연령주의는 구체적으로 노인세대에 대한 부정적 편견, 노인세대에 대한 차별, 노화에 대한 불안, 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구성되었다. 연령주의는 노화와 같은 폭넓은 범위의 인식과 시각이 포함된 개념이고 노화에 따른 차별의 개념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노화에 대한 인식은 개인적 차원의 인식을 반영할 뿐 아니라 노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반영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연령주의와 노인세대에 대한 고정관념, 정서적 반응을 구조적으로 다룬 선행연구를 거의 없지만 하태희, 이은영(2021)에 따르면 간호대 학생의 노인

대한 차별적 태도(연령주의)와 고정관념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차별적 태도와 정서적 회피 간의 정적인 관계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했다. 즉, 연령주의는 노인세대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연령주의와 존경, 혐오, 질투, 동정 등 정서 간의 관계성은 아직 불분명하다. 차별, 편견, 노화 불안 등 차원을 포함한 연령주의의 개념적 특성과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세대에 대한 연령주의가 BIAS Map에서 제시한 고정관념과 정서적 반응에 대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 검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 및 연구문제를 제시했다.

연구가설 2: 타 세대의 연령주의가 노인세대에 대한 고정관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1: 타 세대의 연령주의가 노인세대에 대한 고정관념 유능함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2: 타 세대의 연령주의가 노인세대에 대한 고정관념 따뜻함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3: 타 세대의 연령주의가 노인세대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보이는가?

5) 미디어 접촉과 세대연대 인식

올포트와 동료들(Allport, Clark & Pettigrew, 1954)은 접촉가설(Contact hypothesis)을 통해 갈등 관계에 있는 사회적 집단들 사이에 나타나는 고정관념이나 편견, 부정적 인식 등을 개선하는 데 사회적 집단 간의 접촉이 그 집단에 대한 태도나 인식 그리고 차별과 같은 행동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접촉가설은 미국과 서구사회의 다양한 인종 및 민족 간 갈등해결에 실질적인 적용점을 제공했고(백영민, 안수찬, 김위근, 2019) 이후 미디어를 통한 접촉과 준사회적 상호작용 개념과 연결하여 서로 다른 사회집단에 대한 노출과 접촉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집단 구성원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다(Schiappa, Gregg & Hewes, 2005). 즉 미디어를 통한 노인세대와의 접촉은 개인의 노인에 대한 태도나 인식의 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미디어와 노인세대에 관련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미디어에 표현된 노인의 이미지를 분석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미디어 상에 묘사된 노인의 이미지는 주로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경향의 묘사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국내 뉴스기사에

게시된 노인에 대한 논조 역시 대부분 부정적으로 표현되는 경향이 나타났다(오현정, 신경아, 2019). 신경아, 최윤희(2020)은 국내 5개 주요 일간지의 노인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분석한 결과, 댓글전체에서 노인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표현한 댓글이 84.9%를 차지했으며 그중에서도 혐오감의 표현이 21.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댓글분석을 통해 노인들이 사라져야 할 존재로 표현되거나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인 이질적 집단으로 간주되고 배척당하는 경향이 파악되었다.

미디어 접촉과 관련하여 안순태, 강한나(2018)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노인세대와의 간접접촉이 노인차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소셜미디어를 통한 노인세대와의 간접접촉이 노인세대에 대한 낙인형성으로 이루어지고 이는 노인차별로 연결되는 구조적인 관계를 보여주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한 간접접촉 경험이 부정적일수록 노인세대에 대한 낙인(Stigma)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미디어 상의 이미지에 반복된 노출은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하게 하고, 이 고정관념은 일반화로 고착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안순태, 강한나, 2018). 소셜미디어 뿐만 아니라 대중매체를 통해 보여진 노인 이미지가 부정적일수록 노인세대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유사한 연구결과도 있다(안순태, 이선영, 정순돌, 2017). 박윤경, 이은주, 류상희(2016)는 충북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노인세대 접촉경험과 노인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는데 미디어를 통한 노인 이미지는 주로 부정적이었으며 성인응답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 미디어 이미지에 노출된 집단이 긍정적 이미지를 가진 집단보다 노인세대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미디어를 통해 묘사된 노인세대의 이미지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미디어를 통한 간접접촉이 많을수록 노인세대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과 연결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디어 접촉과 BIAS Map의 정서적 반응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고 미디어 접촉이 노인세대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연구가설 및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연구가설 3: 타 세대의 노인세대에 대한 미디어 접촉이 노인세대에 대한 고정관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1: 타 세대의 노인세대에 대한 미디어 접촉이 노인세대에 대한 유능함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2: 타 세대의 노인세대에 대한 미디어 접촉이 노인세대에 대한 따뜻함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4: 타 세대의 노인세대에 대한 미디어 접촉이 노인세대에 대한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보이는가?

이상의 연구가설을 종합해 다음의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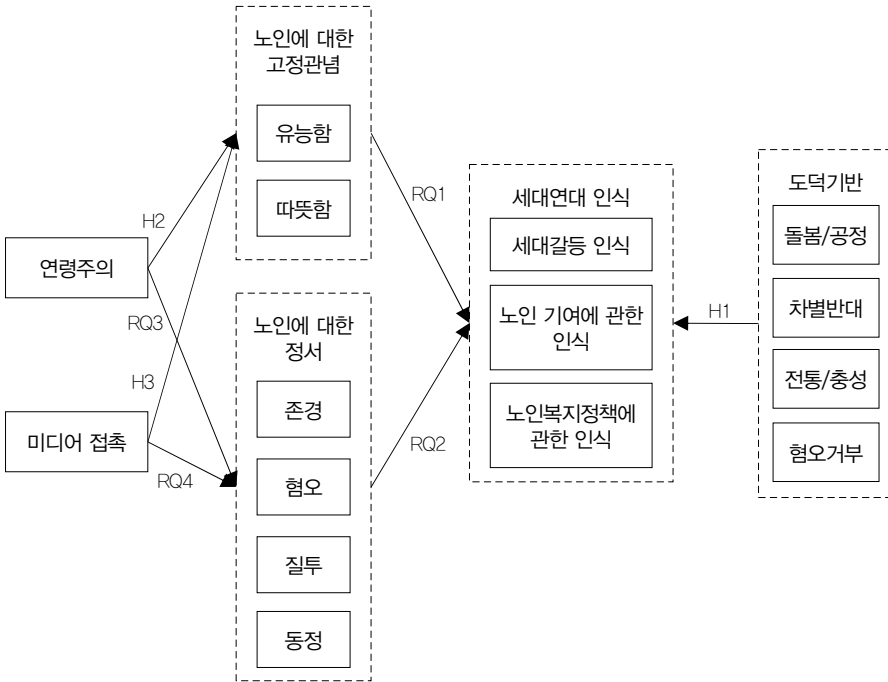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3.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전국 만19세 - 59세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법, 기초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의거하여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설문 참여자에게 제시했다. 또한 노인세대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는 세대는 만 19~59세의 성인으로 노인세대보다 젊은 연령집단으로 이루어졌다. 2022년 4월 4일 - 4월 6일 3일간 조사회사인 (주)마크로밀 엠브

레인을 통해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고 총 301부 유효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다. 응답자는 전국으로 분포되어 있고 남자는 142명(47.2%), 여자는 159명(52.8%)으로 나타나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거의 비슷했다. 연령대의 경우 만19 - 29세는 62명(20.6%), 만30 - 39세는 74명(24.6%)이고 만40 - 49세는 81명(26.9%), 만50 - 59세는 84명(27.9%)으로 집계되었다. 응답자 중에 대학재학 또는 대졸이 203명(67.4%)으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42	47.2 %
	여성	159	52.8 %
연령	만19-29세	62	20.6 %
	만30-39세	74	24.6 %
	만40-49세	81	26.9 %
	만50-59세	84	27.9 %
거주지	서울	79	26.2 %
	부산	25	8.3 %
	대구	10	3.3 %
	인천	26	8.6 %
	광주	13	4.3 %
	대전	11	3.7 %
	울산	8	2.7 %
	경기도	82	27.2 %
	강원도	7	2.3 %
	충청북도	4	1.3 %
	충청남도	6	2.0 %
	전라북도	4	1.3 %
	경상북도	7	2.3 %
	경상남도	14	4.7 %
	제주도	1	0.3 %
	세종	4	1.3 %
	학력	고졸 또는 고졸 이하	55
대학재학 또는 대졸		203	67.4 %
대학원 재학 또는 대학원 졸업		43	14.3 %

N = 301

2) 주요변인의 측정

본 연구는 연령주의, 미디어 접촉, BIAS Map의 고정관념 변인(유능함, 따뜻함), 정서변인(존경, 혐오, 동정, 질투)과 도덕기반 변인(동정/돌봄, 차별반대, 전통/충성, 혐오거부)을 선행변인으로 설정했다. 종속변인은 세대연대 인식의 3개 차원(세대갈등 인식, 노인세대 기여에 관한 인식,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인식) 등이다. 변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구성되었고 연령주의, 미디어 접촉, 고정관념, 정서, 세대연대 인식에 관한 측정은 7점 리커트(Likert) 척도(1: 전혀 아니다 ~ 7: 매우 그렇다)를 통해 이루어졌다. 한편 도덕기반 변인에 관련 문항은 류원식, 이준웅(2017)이 제시한 한국형 도덕기반 척도를 기초하여 구성했고 6점 리커트(Likert) 척도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차별반대, 전통/충성, 혐오거부 변인은 '귀하는 어떤 것(행동, 상황 등)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아래의 고려사항들이 귀하의 생각(판단)과 어느 정도 일치합니까?'와 같은 기본적인 도덕가치에 관련한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다.¹⁾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정은 Jamovi 2.2.3을 이용하여 각 변인의 McDonald's ω 값을 산출했다. 일반적으로 내적 일관성의 계수는 0.60 이상이라면 수용 가능한데(Bagozzi & Yi, 1988), 도덕기반 변인 중 동정/돌봄 문항 중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를 제거한 후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모두 0.60 이상으로 나타나 수용될 만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문항이 제거된 후 동정/돌봄 변인의 내용이 주로 동물과 인간의 생명에 해치지 않은 가치관 등으로 구성되었고 주로 상해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게 되어 변인이름을 '상해반대'로 변경해 후속 분석 및 결과제시에 이용했다. 변인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했고 타당화된 문항은 <표 2>, <표 3>과 같이 구성되었다.

1) 그레이엄 등(Graham et al., 2008)은 도덕기반 척도(Moral Foundations Questionnaire)를 최초로 개발했으며 모두 6점 척도로 구성했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2. 선행변인의 타당화된 문항 구성과 신뢰도 검정

변인	측정문항	참고 문헌	Mean	SD	McDonald's ω	
고정 관념	유능함	무능하다 - 유능하다	조인숙, 김도연 (2017)	4.24	0.976	0.804
		잘하는 게 없다 - 재주가 많다				
		독단적이다 - 현명하다				
		경제적으로 의존적이다 - 독립적이다				
	따뜻함	불친절하다 - 친절하다				
		차갑다 - 따뜻하다				
정서	존경	이기적이다 - 너그럽다	4.23	1.070	0.834	
		의심이 많다 - 남을 잘 믿는다				
	혐오	나는 노인들이 존경스럽다고 생각한다.	4.46	1.030	0.895	
		나는 노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동정	나는 노인들을 혐오한다.	2.38	1.180	0.826	
		나는 노인들을 경멸한다.				
	질투	나는 노인들을 동정한다.	3.57	1.210	0.803	
		나는 노인들을 불쌍하게 여긴다.				
상해반대	노인들은 나의 선망의 대상이다.	3.01	1.140	0.732		
	나는 노인들이 부럽다.					
도덕 기반	차별반대	인간이 저지르는 최악의 행동 중 하나는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동물을 해치는 것이다.	4.93	0.822	0.606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				
	전통/충성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대우를 받는가의 차별여부를 고려한다.	4.19	0.868	0.764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어떤 사람이 불공정하게 행동하는가의 여부를 고려한다.				
	혐오거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어떤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거부당하는가의 여부를 고려한다.	3.44	0.860	0.774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어떤 사람의 행동이 자기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보이는지의 여부를 고려한다.				
	혐오거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어떤 사람이 사회의 전통을 준수하는가의 여부를 고려한다.	4.31	1.020	0.866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어떤 사람이 충성심이 있는가의 여부를 고려한다.				
	연령주의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어떤 사람이 역겨운 행동을 하는가의 여부를 고려한다.	장세철, 김경민 (2018)	3.90	1.080	0.862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어떤 사람이 진인한가의 여부를 고려한다.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어떤 행동이 혼란이나 무질서를 야기하는가의 여부를 고려한다.						
연령주의	노인은 과거에 갇혀 사는 경향이 있다.	장세철, 김경민 (2018)	3.90	1.080	0.862	
	나는 종종 노인과 눈이 마주치는 것을 피한다.					
	나는 노인이 나에게 말 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변인	측정문항	참고 문헌	Mean	SD	McDonald's ω
	나는 노인의 모임 초대에는 가고 싶지 않다.				
	나는 개인적으로 노인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				
	노인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				
	노인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불평이 많다.				
미디어 접촉	나는 텔레비전에서 노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본다.	Kwong & Yan (2021)	3.23	1.200	0.882
	나는 유튜브에서 노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본다.				
	나는 네이버/다음 포털뉴스에서 노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본다.				
	나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서 노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본다.				

표 3. 종속변인의 타당화된 문항 구성과 신뢰도 검정

변인	측정문항	참고문헌	Mean	SD	McDonald's ω	
세대 연대 인식	세대 갈등 인식	최유석 외 (2015), 최유석 (2014)	3.45	1.030	0.681	
						노인들이 나이 들어서도 일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젊은 사람을 주로 고용한 회사가 다른 연령대 사람을 고용한 회사보다 더 좋은 성과를 보일 것이다.
	노인들은 사회의 부담이다.					
	노인 기여에 관한 인식					가족 또는 친척을 돌보는 노인의 기여는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각종 단체와 지역 활동에서 노인과 젊은이는 함께 만나 일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
						노인의 필요(니즈)에 맞는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경제발전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노인 정책에 관한 인식					정부는 국민연금과 노인 돌봄에 필요한 돈을 더 많이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노인이 원한다면 퇴직연령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노인들은 근로세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 동의한다.						
			4.94	1.040	0.828	
			4.91	1.050	0.775	

3) 통계분석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이용했다. 구조방정식모형의 추정방법은 최대우도(ML: Maximum likelihood)를 이용해 측정변수 간의 공분산을 추정하는 방법과 최소제곱(LS: Least squares)를 이용해 설명되지 않은 예측오차(잔차분산)를 최소화시키는 부분최소제곱(PLS: Partial least squares) 방법이 있다(Hair et al., 2022). 추정방법에 따라 SEM은 공분산 기반 구조방정식모형(CB-SEM:

Covariance-based SEM)과 부분최소제곱 구조방정식모형(PLS-SEM: Partial least squares SEM)으로 구분되었다. 헤어 등(Hair et al., 2022)은 구조모형이 복잡하거나 표본크기가 작을 때 PLS-SEM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으며, 연구가 탐색적이거나 기존의 구조 이론을 확장할 경우 PLS-SEM이 CB-SEM보다 더 적절한 통계 방법으로 보고된 바 있다(Hair et al., 2019).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복잡성을 고려해 PLS-SEM 분석기법인 SmartPLS 3.3.5(Ringle, Wende & Becker, 2015)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했다.

4. 연구결과

1) 측정모형 평가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장세철, 김경민(2018)의 연령주의 척도는 타당성 검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Jamovi 2.2.3을 이용하여 연령주의 변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요인추출 방법은 주축 요인 추출을 실시했고 베리맥스 회전을 실시했다. 요인수를 1개로 고정해 요인적재량 0.5 이하의 문항을 모두 제거한 결과, 총 7개 항목으로 연령주의를 구성했다. KMO 측도는 0.804로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도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요인분석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누적분산은 47.8%로 나타나 설명력은 수용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표 4. 연령주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	요인	
	1	Uniqueness
연령주의 8	0.854	0.271
연령주의 5	0.761	0.420
연령주의 7	0.731	0.466
연령주의 4	0.709	0.497
연령주의 16	0.685	0.531
연령주의 3	0.521	0.728
연령주의 17	0.512	0.738
SS Loadings		3.35
% of Variance		47.8
KMO		0.804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2 = 1005, df = 21, p < .001$	

PLS-SEM에서는 내적 일관성 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한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의 평가기준으로는 Dijkstra-Henseler의 ρ_{o_A} 와 합성 신뢰도(CR : Composite Reliability)가 사용된다. ρ_{o_A} 는 0.7보다 클 때 바람직한 신뢰도로 평가되고(Dijkstra & Henseler, 2015), CR 는 0.7 이상으로 나타날 때 바람직한 신뢰도로 평가된다(Werts, Linn & Jöreskog, 1974). 집중타당도의 평가 기준으로는 외부적재치(L) 적합성(Outer loading relevance), 평균분산추출(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이 사용된다. $L \geq 0.7$ 이라면 해당 관측변인을 유지하고 $L < 0.4$ 라면 해당 관측변인을 제거한다(Bagozzi, Yi & Phillips, 1991; Hair et al., 2022). AVE 는 0.5 이상으로 나타나면 바람직한 집중타당도로 평가될 수 있다(Fornell & Larcker, 1981). 또한 PLS-SEM에서는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동시에 설정하고 평가하는데, 변수의 경로를 먼저 설정한 후 측정모형을 평가하기 위하여 SmartPLS의 PLS Algorithm 명령을 실행하여 경로가중법(Path weighting scheme)을 통해 추정치를 계산한다. 최대 반복횟수와 반복정지 기준은 디폴트값으로 설정된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측정모형을 평가한 결과 외부적재치가 낮은 전통/층성 문항 4, 세대갈등에 관한 인식 문항 1을 제거한 후 변인의 AVE 값이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상해반대 변인의 ρ_{o_A} 값이 0.609로 나타났지만, CR 값이 0.835로 높게 나타나 수용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상해반대를 제외한 변인이 ρ_{o_A} 값이 모두 0.7 이상, CR 값이 모두 0.8 이상으로 집계되어 신뢰도와 집중타당도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5. 변인의 집중타당도와 신뢰도 검정

변인	문항	집중타당도		신뢰도	
		L	AVE	ρ_{o_A}	CR
연령주의	연령주의 16	0.748	0.547	0.876	0.892
	연령주의 17	0.587			
	연령주의 3	0.600			
	연령주의 4	0.761			
	연령주의 5	0.806			
	연령주의 7	0.769			
	연령주의 8	0.860			
미디어 접촉	미디어 1	0.763	0.734	0.893	0.917
	미디어 2	0.902			
	미디어 3	0.899			
	미디어 4	0.857			

변인	문항	집중타당도		신뢰도		
		<i>L</i>	<i>AVE</i>	<i>rho_A</i>	<i>CR</i>	
도덕기반	상해반대	상해반대 2	0.861	0.717	0.609	0.835
		상해반대 3	0.832			
	차별반대	차별반대 1	0.817	0.677	0.771	0.863
		차별반대 2	0.859			
		차별반대 3	0.791			
	전통/충성	전통/충성 1	0.825	0.687	0.785	0.868
		전통/충성 2	0.853			
		전통/충성 3	0.809			
	혐오거부	혐오거부 1	0.903	0.783	0.877	0.915
		혐오거부 2	0.872			
		혐오거부 3	0.880			
	고정관념	유능함	유능함 1	0.842	0.626	0.803
유능함 2			0.759			
유능함 3			0.764			
유능함 4			0.798			
따뜻함		따뜻함 1	0.827	0.665	0.836	0.888
		따뜻함 2	0.817			
		따뜻함 3	0.867			
		따뜻함 4	0.746			
정서	존경	존경 1	0.952	0.905	0.895	0.950
		존경 2	0.951			
	혐오	혐오 1	0.920	0.852	0.827	0.920
		혐오 2	0.926			
	동정	동정 1	0.905	0.835	0.809	0.910
		동정 2	0.923			
	질투	질투 1	0.847	0.785	0.786	0.879
		질투 2	0.923			
세대연대 인식	세대갈등 인식	세대갈등 2	0.803	0.595	0.772	0.811
		세대갈등 3	0.604			
		세대갈등 4	0.880			
	노인기여에 관한 인식	노인기여 1	0.834	0.741	0.842	0.896
		노인기여 2	0.871			
		노인기여 3	0.877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인식	복지정책 1	0.828	0.680	0.775	0.864
		복지정책 2	0.873			
복지정책 3		0.770				

판별타당도 평가의 경우, PLS-SEM에서 최근에 개발된 새로운 평가기준인 HTMT(Heterotrait-monotrait ratio)가 사용되는데(Henseler, Ringle & Sarstedt, 2015). HTMT가 0.90 미만이라면 판별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Hair et al., 2022).

HTMT를 산출한 결과 모두 0.90보다 작기 때문에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

표 6. 변인의 판별타당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2	0.132													
3	0.208	0.241												
4	0.138	0.143	0.461											
5	0.107	0.128	0.063	0.378										
6	0.150	0.168	0.471	0.887	0.294									
7	0.451	0.271	0.214	0.079	0.071	0.059								
8	0.481	0.216	0.267	0.167	0.041	0.108	0.783							
9	0.562	0.288	0.371	0.134	0.112	0.149	0.687	0.583						
10	0.582	0.234	0.417	0.255	0.162	0.287	0.333	0.395	0.468					
11	0.129	0.317	0.054	0.083	0.078	0.053	0.154	0.112	0.221	0.222				
12	0.202	0.534	0.255	0.201	0.079	0.184	0.430	0.242	0.361	0.314	0.539			
13	0.438	0.197	0.375	0.126	0.190	0.145	0.188	0.232	0.302	0.572	0.251	0.156		
14	0.173	0.167	0.519	0.502	0.072	0.468	0.298	0.273	0.389	0.425	0.097	0.118	0.239	
15	0.340	0.136	0.533	0.305	0.143	0.272	0.453	0.396	0.598	0.384	0.199	0.115	0.366	0.772

Note. 1: 연령주의, 2: 미디어 접촉, 3: 상해반대, 4: 차별반대, 5: 전통/충성, 6: 혐오거부, 7: 유능함, 8: 따뜻함, 9: 존경, 10: 혐오, 11: 동정, 12: 질투, 13: 세대갈등 인식, 14: 노인기여에 관한 인식, 15: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인식.

2) 구조모형의 평가

PLS-SEM 구조모형은 다중공선성, 결정계수(R^2), 예측적 적합성(Q^2) 평가를 통해 구조모형을 검정할 수 있다. 내생잠재변인에 대한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의 판단은 내부 VIF(Inner VIF value)를 이용한다(Hair et al., 2022). 내부 VIF가 5 미만이라면 잠재변인 간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는 R^2 으로 표시되고 외생잠재변인들이 내생잠재변인에 대한 설명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의미한다. R^2 이 예측적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음과 동시에 Stone-Geisser의 Q^2 (Q^2 value)도 예측적 적합성을 반영할 수 있다. Q^2 은 0보다 크면 외생잠재변인이 내생잠재변인에 대해 전체적으로 예측적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0보다 작으면 예측적 적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Cha, 1994; Geisser, 1974; Stone, 1974). Q^2 을 계산하기 위해 Blindfolding 명령을 추가로 실행했다.

본 연구의 잠재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내부 VIF를 살펴본 결과 모두 5 미만으로 집계되어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내생잠재변인의

R^2 을 산출한 결과, 연령주의와 미디어 접촉이 유능함($R^2 = 0.182$, $Adjusted R^2 = 0.177$)에 대한 설명력은 18.2%, 따뜻함($R^2 = 0.184$, $Adjusted R^2 = 0.179$)에 대한 설명력은 18.4%로 나타났다. 존경($R^2 = 0.289$, $Adjusted R^2 = 0.284$)에 대한 설명력은 28.9%, 혐오($R^2 = 0.308$, $Adjusted R^2 = 0.304$)에 대한 설명력은 30.8%, 동정($R^2 = 0.078$, $Adjusted R^2 = 0.072$)에 대한 설명력은 7.8%, 질투($R^2 = 0.215$, $Adjusted R^2 = 0.210$)에 대한 설명력은 21.5%로 집계되었다. BIAS Map의 6개 변인과 도덕기반 4개 변인의 세대갈등 인식($R^2 = 0.282$, $Adjusted R^2 = 0.258$)에 대한 설명력은 28.2%, 노인 기여에 관한 인식($R^2 = 0.331$, $Adjusted R^2 = 0.308$)에 대한 설명력은 33.1%,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인식($R^2 = 0.342$, $Adjusted R^2 = 0.320$)에 대한 설명력은 34.2%로 분석되었다. 또한, Q^2 을 평가한 결과 모두 0보다 크므로 구조모형은 예측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적합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잠재변인 간의 내부 VIF

	유능함	따뜻함	존경	혐오	동정	질투	세대갈등 인식	노인 기여에 관한 인식	노인복지 정책에 관한 인식
연령주의	1.010	1.010	1.010	1.010	1.010	1.010			
미디어 접촉	1.010	1.010	1.010	1.010	1.010	1.010			
상해반대							1.306	1.306	1.306
차별반대							2.258	2.258	2.258
전통/충성							1.190	1.190	1.190
혐오거부							2.265	2.265	2.265
존경							2.039	2.039	2.039
혐오							1.668	1.668	1.668
동정							1.262	1.262	1.262
질투							1.628	1.628	1.628

표 8. 내생잠재변인의 결정계수와 예측적 적합성

	R^2	$Adjusted R^2$	Q^2
유능함	0.182	0.177	0.106
따뜻함	0.184	0.179	0.117
존경	0.289	0.284	0.251
혐오	0.308	0.304	0.259
동정	0.078	0.072	0.052
질투	0.215	0.210	0.151
세대갈등 인식	0.282	0.258	0.136
노인기여에 관한 인식	0.331	0.308	0.223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인식	0.342	0.320	0.209

3) 가설검증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martPLS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명령을 통해 t 값을 계산했다. 부표본(Subsample) 크기는 프로그램에서 권고한 5000으로 설정했다. 먼저, 노인세대에 대한 고정관념인 유능함이 세대연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문제 1-1에 대한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능함은 세대갈등 인식($\beta = 0.031, p = .685$), 노인 기여에 관한 인식($\beta = 0.111, p = .119$),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인식($\beta = 0.096, p = .215$) 등에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노인세대에 대한 고정관념인 따뜻함이 세대연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문제 1-2에 대한 분석의 경우, 따뜻함은 세대갈등 인식($\beta = -0.006, p = .924$), 노인 기여에 관한 인식($\beta = -0.031, p = .645$),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인식($\beta = 0.019, p = .794$)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세대에 대한 존경이 세대연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문제 2-1을 검증한 결과, 존경은 노인세대 기여에 관한 인식($\beta = 0.165, p = .056$)과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인식($\beta = 0.306, p < .001$)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고, 세대갈등 인식($\beta = -0.111, p = .187$)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노인세대에 대한 혐오가 세대연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문제 2-2를 검증한 결과, 혐오는 세대갈등 인식($\beta = 0.388, p < .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지만, 노인세대 기여에 관한 인식($\beta = -0.144, p = .065$),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인식($\beta = -0.095, p = .145$)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노인세대에 대한 질투가 세대연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문제 2-3을 분석한 결과, 질투는 세대갈등 인식($\beta = -0.091, p = .202$), 노인세대 기여에 관한 인식($\beta = -0.073, p = .245$),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인식($\beta = -0.019, p = .758$) 등 어느 것에도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노인세대에 대한 동정이 세대연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문제 2-4를 검증한 결과, 동정은 세대갈등 인식($\beta = 0.158, p = .017$),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인식($\beta = 0.113, p = .033$)에 정적인 영향이 집계되었는데 노인세대 기여에 관한 인식($\beta = 0.081, p = .149$)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기반 변인인 상해반대가 세대연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설 1-1을 분석한 결과, 상해반대는 세대갈등 인식($\beta = -0.138, p = .014$)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노인세대 기여에 관한 인식($\beta = 0.146, p = .008$),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인식($\beta = 0.206, p = .001$)에 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연구가설 1-1은 채택되었다. 도덕기

반의 차별반대가 세대연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설 1-2를 검증한 결과, 차별반대는 노인세대 기여에 관한 인식($\beta = 0.199, p = .004$)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세대갈등 인식($\beta = 0.101, p = .186$),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인식($\beta = 0.071, p = .384$)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연구가설 1-2는 부분 채택되었다. 전통/충성이 세대연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설 1-3을 검증한 결과, 전통/충성은 세대갈등 인식($\beta = 0.073, p = .246$), 노인세대 기여에 관한 인식($\beta = -0.051, p = .483$),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인식($\beta = 0.057, p = .346$)에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가설 1-3은 기각되었다. 혐오거부가 세대연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설 1-4를 검증한 결과, 혐오거부는 노인세대 기여에 관한 인식($\beta = 0.152, p = .042$)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지만, 세대갈등 인식($\beta = -0.053, p = .491$),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인식($\beta = 0.027, p = .738$)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연구가설 1-4는 부분 채택되었다.

연령주의가 노인세대에 대한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설 2를 검증한 결과, 연령주의는 유능함($\beta = -0.362, p < .001$), 따뜻함($\beta = -0.392, p < .001$)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연구가설 2-1, 연구가설 2-2는 모두 채택되었다. 연령주의가 노인세대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문제 3을 살펴본 결과, 연령주의는 존경($\beta = -0.481, p < .001$), 질투($\beta = -0.120, p = .037$)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고 혐오($\beta = 0.521, p < .001$)에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반면 동정($\beta = 0.075, p = .266$)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미디어 접촉이 노인세대에 대한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설 3을 검증한 결과, 미디어 접촉은 유능함($\beta = 0.194, p = .003$), 따뜻함($\beta = 0.141, p = .037$)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연구가설 3-1, 연구가설 3-2는 모두 기각되었다. 미디어 접촉이 노인세대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문제 4를 분석한 결과, 존경($\beta = 0.197, p = .001$), 혐오($\beta = 0.250, p < .001$), 질투($\beta = 0.436, p < .001$), 동정($\beta = 0.277, p < .001$)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분석되었다. 미디어 접촉은 노인세대에 대한 다양한 정서반응을 일으키는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9. 경로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경로	Stand. Coef.	SD	t	p	95% Bias Corrected CI	
연령주의 → 유능함	-0.362	0.065	5.550***	.000	-0.481	-0.223
연령주의 → 따뜻함	-0.392	0.067	5.870***	.000	-0.510	-0.248
연령주의 → 존경	-0.481	0.050	9.703***	.000	-0.568	-0.376
연령주의 → 혐오	0.521	0.047	11.174***	.000	0.418	0.606
연령주의 → 질투	-0.120	0.058	2.090*	.037	-0.231	-0.006
연령주의 → 동정	0.075	0.067	1.112	.266	-0.053	0.211
미디어 접촉 → 유능함	0.194	0.065	2.968**	.003	0.061	0.317
미디어 접촉 → 따뜻함	0.141	0.068	2.084*	.037	0.003	0.270
미디어 접촉 → 존경	0.197	0.059	3.371**	.001	0.080	0.307
미디어 접촉 → 혐오	0.250	0.067	3.749***	.000	0.116	0.376
미디어 접촉 → 질투	0.436	0.057	7.693***	.000	0.314	0.537
미디어 접촉 → 동정	0.277	0.063	4.403***	.000	0.145	0.390
유능함 → 세대갈등	0.031	0.075	0.405	.685	-0.106	0.188
유능함 → 노인세대기여	0.111	0.071	1.559	.119	-0.032	0.250
유능함 → 노인복지정책	0.096	0.077	1.241	.215	-0.049	0.257
따뜻함 → 세대갈등	-0.006	0.067	0.095	.924	-0.132	0.129
따뜻함 → 노인세대기여	-0.031	0.068	0.461	.645	-0.162	0.104
따뜻함 → 노인복지정책	0.019	0.072	0.262	.794	-0.122	0.156
존경 → 세대갈등	-0.111	0.084	1.320	.187	-0.280	0.051
존경 → 노인세대기여	0.165	0.086	1.915*	.056	0.001	0.339
존경 → 노인복지정책	0.306	0.086	3.551***	.000	0.144	0.484
혐오 → 세대갈등	0.388	0.075	5.156***	.000	0.245	0.535
혐오 → 노인세대기여	-0.144	0.078	1.843	.065	-0.297	0.007
혐오 → 노인복지정책	-0.095	0.065	1.458	.145	-0.221	0.034
질투 → 세대갈등	-0.091	0.071	1.275	.202	-0.231	0.049
질투 → 노인세대기여	-0.073	0.063	1.164	.245	-0.197	0.054
질투 → 노인복지정책	-0.019	0.062	0.308	.758	-0.137	0.103
동정 → 세대갈등	0.158	0.066	2.398*	.017	0.020	0.282
동정 → 노인세대기여	0.081	0.056	1.445	.149	-0.025	0.192
동정 → 노인복지정책	0.113	0.053	2.136*	.033	0.008	0.220
상해반대 → 세대갈등	-0.138	0.056	2.461*	.014	-0.249	-0.027
상해반대 → 노인세대기여	0.146	0.055	2.656**	.008	0.036	0.252
상해반대 → 노인복지정책	0.206	0.060	3.415**	.001	0.087	0.323
차별반대 → 세대갈등	0.101	0.076	1.323	.186	-0.043	0.253
차별반대 → 노인세대기여	0.199	0.070	2.861**	.004	0.067	0.336
차별반대 → 노인복지정책	0.071	0.082	0.871	.384	-0.095	0.224
전통/충성 → 세대갈등	0.073	0.063	1.160	.246	-0.061	0.188
전통/충성 → 노인세대기여	-0.051	0.073	0.701	.483	-0.206	0.083
전통/충성 → 노인복지정책	0.057	0.060	0.942	.346	-0.073	0.165
혐오거부 → 세대갈등	-0.053	0.078	0.688	.491	-0.206	0.099
혐오거부 → 노인세대기여	0.152	0.075	2.035*	.042	0.011	0.307
혐오거부 → 노인복지정책	0.027	0.080	0.335	.738	-0.130	0.185

*** $p < 0.001$, ** $p < 0.01$, * $p <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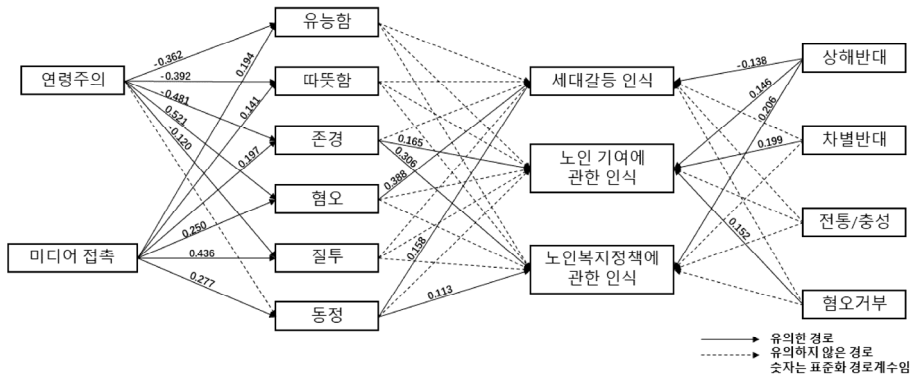


그림 2. 구조모형

5. 결론 및 함의

1)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 주목하여 젊은 세대가 갖는 노인세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갈등에 작용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변인들을 탐색해 이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BIAS Map을 바탕으로 한 노인세대에 대한 고정관념과 정서반응, 한국적 도덕기반, 연령주의, 미디어 접촉 등 변인을 활용해 노인세대와의 갈등인식, 노인세대의 기여에 대한 인식,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등을 포함한 세대연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BIAS Map의 고정관념 요인인 유능함과 따뜻함은 세대연대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정서 요인이 세대연대 인식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노인세대에 대해 존경심을 갖을수록 노인세대 기여에 관한 인식과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인식도 호의적이었다. 한편 노인세대를 불쌍하게 여기는 동정적 반응이 높을수록 노인이 부담이다, 혹은 노인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보는 세대갈등 인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에 대한 동정심이 경제적 무능이나 빈곤의 차원에서 인식된 것은 아닌가 하는 해석을 생각할 수 있다. 반면에 노인세대에 대한 동정심이 높게 인식될수록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은 호의적이었다. 노인에 대한 동정심은 노인세대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와 도움을 제공하는 반응과

아울러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상으로서 노인세대가 일자리 경쟁자로서 인식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적 시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인은 청년세대에게 일자리 경쟁자가 아니고 노인세대와 젊은 경제인구집단들이 종사하는 직군이나 업무가 차별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소통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 사업과 같은 정책에 관련한 소통이 대표적인데 65세 이상 노인세대의 사회참여와 경제 활동을 돕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역사회 공공미화업무, 복지시설 보조업무, 지역사회에 연계된 봉사 등 젊은 경제인구세대와는 다른 형태나 종류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차별화된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부각하고 노인세대의 일자리사업을 통해 서로 다른 차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소통한다면 세대 간 갈등요소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보면 노인세대가 유능하다고 인식하거나 따뜻하고 친절하다고 인식하는 고정관념의 개념보다는 노인세대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노인세대에 대한 인식과 행동의도에 있어 더 강력한 선행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BIAS Map에서 예측했던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의 역할은 종속변인인 세대연대 인식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의외였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고정관념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응답자들의 고정관념 문항에 대한 응답경향을 살펴본 결과, 응답자들의 노인세대의 유능함 차원이나 따뜻한 차원의 평가가 7점 척도상에서 평균 4.24($SD = 0.976$, 유능함), 4.23($SD = 1.070$, 따뜻함)로 고정관념에 대해 다소 중립적인 응답경향을 보여주었다. 고정관념에 부여된 중간값은 응답자들에게 실제로 고정관념이 어떤 의미로 평가되었는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고정관념이라는 개념을 통해 측정되는 특성이 세대연대 인식과는 별개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인세대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노인복지정책에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노인세대에 대한 존경심과 안쓰럽게 여기는 정서적 반응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세대에 대한 존경심은 노인세대의 사회와 가족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평가할 때 세대연대 인식도 함께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소통을 실행한다면 우리사회 노인세대가 이루었던 사회적, 산업적 성과를 인정하고 설명하는 소통이 우선되어야 하며 노인세대의 기여를 강조하는 것이 세대 간 연대의식을 높이는 키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도덕기반과 세대연대 인식 간의 관계인 경우, 도덕적으로 상해반대의 가치를 높이 생각할수록, 세대갈등 인식이 낮아지고 노인세대 기여에 관한 인식과 노인복

지정책에 대해서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별반대와 혐오거부와 같은 도덕 가치를 높게 인식할수록 노인세대의 기여에 관한 인식도 호의적이었다. 즉, 상해반대, 차별반대, 혐오거부 등의 도덕기반 가치에 대한 강조는 노인세대와의 세대연대 인식 제고에 유의미한 접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도덕기반 변인은 인권 존중, 공정과 차별반대, 생명 존중 등의 매우 기본적인 도덕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전통/충성의 경우, 세대연대 인식의 어느 차원과도 유의미한 관계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전통에 대한 존중이나 권위, 연장자에 대한 권위존중 가치와 같은 전통적인 도덕가치보다는 대상의 연령에 상관없이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보편 가치가 세대 간 연대를 높이는 데 필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따라서 요즘 흔히 말하는 X세대, MZ세대 등의 연령에 기초한 세대구분이나 세대별 특징을 강조하는 식의 사회적 분위기로부터 벗어나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평적 연대감을 강조하는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이 하나의 제안이 될 수 있겠다. 한편 현실적으로는 우리사회의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로 인해 사회재원의 배분이나 재정투여 등에 있어 서로 다른 연령집단 간에 갈등적 요소가 잠재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차별에 반대하는 등의 도덕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내재화와 교육은 세대 간 연대인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세대연대 인식은 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이룩하는데 필수적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만큼 생명존중, 차별반대, 타인에 대한 혐오거부 등의 도덕적 가치는 소통의 핵심주제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연령주의와 BIAS Map의 관계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연령주의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유능함과 따뜻함 등의 고정관념 지각, 존경과 질투 등의 정서적 반응이 모두 낮아졌다. 반면에 연령주의가 높아지면 혐오는 증가했다. 연령주의는 노인세대에 관한 고정관념과 정서에 중요한 영향력을 보인 반면 노인세대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세대연대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노인세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노인과의 접촉 회피 등의 연령주의 경향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일본 후쿠오카의 노인요양원에서는 어린이집으로 등원하는 4살 미만 아기가 아침마다 방문해 노인들에게 인사하고 포옹해주는 등 시간을 보내는 일을 담당하도록 했다. 아기들은 이러한 활동에 대해 기저귀와 분유를 답례로 받고 요양원의 노인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며 노인세대에 대해 친근감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이보배, 2022). 이러한 시도를 통해 어린 나이부터 노인세대에 대한 거리감이나 거부감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세대격차를 넘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노인세대와 긍정적인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교육적 혹은 일상적 맥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중심의 교류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연령주의가 극복되는 계기가 만들어 질 수도 있겠다. 또한 세대 간 교류증대와 같은 행동적 목표를 바탕으로 교류행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사회마케팅적 접근도 고려해볼 만하다. 예를 들어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대의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여 도로변의 쓰레기를 치우거나 플로깅 등의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통해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는 참여프로그램의 실행도 자연스럽게 세대 간 상호작용을 늘이는 방안이 될 수 있겠다.

한편, 본 연구의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미디어 접촉의 역할이다. 미디어 접촉과 BIAS Map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들이 미디어를 통해 노인에 관한 접촉이 많을수록 노인세대에 대한 유능함, 따뜻함, 존경, 혐오, 질투, 동정 등 고정관념과 정서반응의 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접촉은 노인에 관한 부정적 요소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노인에 관한 긍정적 요소 또한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주로 나타났던 결과와는 상반된 양상이다. 그러나 정서는 복합적인 개념으로써 노인에 대한 긍정과 부정적 정서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노인이 정년퇴임 후 지역 봉사활동을 참여하는 등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내면서 넉넉한 퇴직금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촉한 경우, 그 노인의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존경의 마음이 생기더라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가용소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질투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각 매체별로 노인세대에 관련한 접촉정도만을 측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접하는지는 파악할 수 없지만 노인세대에 대한 미디어 접촉이 증가된다면 노인세대에 대한 반응과 관심도 증가되고, 존경과 같은 정서적 반응은 세대연대 인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선행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대 간 연대인식을 제고하는데 미디어 역할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결과에 근거해서 노인세대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다른 세대들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이 이루어진다면 그들의 경험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노인세대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2) 한계점과 향후 연구의 방향성

세대연대 인식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을 탐색한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BIAS Map의 고정관념 요인인 유능함과 따뜻함이 세대연대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세대를 평가하는데 유능함과 따뜻함 등 2가지 차원의 고정관념이 가장 적절한 차원이었는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더 적합하고 다양한 고정관념을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의 연구는 노인세대에 대한 다양한 고정관념 유형을 FGI와 같은 탐색적 접근을 통해 파악해 BIAS Map 변인을 확충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세대연대 인식에 미치는 고정관념에 관한 요인을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연령주의는 노인세대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사회문화적인 개념으로 인식하는 반면 노인세대에 대한 고정관념과 정서적 반응은 보다 개인 수준에서 지각하는 인식과 감정적 반응으로 다루어졌다. 따라서 연령주의가 고정관념과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고정관념의 강도나 정서적 반응의 강도, 직접접촉이나 과거의 경험에 따라 연령주의가 오히려 영향을 받을 개연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노인세대에 대한 연령주의를 둘러싼 다양한 차원의 변인관계를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도덕기반 변인의 개념과 문항은 선행연구 토대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기반 변인의 측정 문항이 각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측정문항의 구성이 다소 빈약하게 이루어졌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세대연대 인식에 관련한 사회 상황에 맞게 도덕기반 변인을 보완한다면 정확한 개념의 구현과 아울러 정교한 측정문항을 제시할 수 있겠다. 아울러 본 연구모형과는 다른 구조로 도덕기반의 각 가치들이 노인세대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 앞으로 후속적 연구를 통해 개인의 도덕적 가치와 BIAS Map 변인과의 관계성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세대갈등 현상은 경제, 정치, 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세대갈등 인식에 관한 측정문항이 주로 경제 차원에서 구성되었다. 따라서 더 세밀하고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세대갈등 인식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연령주의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누적분산이 47.8%로 나타나 만족한 수준이 아니었다. 향후 연령주의 척도는 확인적 요인분석 등을 통해 하위 차원 유형화와 재검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미디어 접촉의 중요한 역할을 발견했지만, 미디어 접촉은 매체별로 노인세대에 대한 접촉만 측정하게 되어 실제로 어떠한 내용을 접촉했는지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노인세대에 관련한 미디어 접촉 개념을 확장하여 구체적인 콘텐츠나 콘텐츠 장르 별로 접촉을 측정하고 아울러 정성적인 접근을 통해 실제 우리사회의 노인세대 관련 콘텐츠의 경향이나 추세도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세대연대 인식은 사회적인 통합과 안정에 필요불가결하며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다. 그런 중요성을 가진 만큼 세대연대 인식에 대한 향후의 연구는 어린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세대연대 인식은 다른 세대, 다른 집단에 대한 인지와 이해 뿐 아니라 생명존중, 인권과 인격권 존중과 같은 도덕기반 가치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어린 시절부터 내재화되고 사회적 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청소년기의 도덕기반 가치에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교육적 영향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체계적 교육과정을 통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다 큰 표본을 대상으로 연령, 학력, 수익, 거주지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고정관념이나 정서반응, 세대연대 인식 등의 관계성을 조사하고 각 집단별로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에서 노인세대에 관한 접촉도 중요하지만, 노인세대와의 직접 접촉이 간과될 수 없다. 초고령사회로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서 노인세대에 대한 직접 접촉이 BIAS Map의 변인들과 어떤 관계성을 갖는지 등에 대한 연구와 직·간접 접촉에 대한 비교연구도 흥미로운 연구주제가 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강민연, 김춘경 (2010). 노인의 자원봉사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K시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노인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국노년학*, 30(4), 1409~1427.
- 김동심, 김주현, 주경희 (2020a). 노인에 대한 청소년의 연령주의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교육과학연구*, 51(1), 135~157.
- 김동심, 김주현, 주경희 (2020b). 중고생과 대학생의 노인 인식. *청소년학연구*, 27(5), 147~168.
- 김명수, 박용범, 윤원섭, 김인오, 강계만, 진영태, 한주형 (2023, 1월 8일). 경제위기로 세대·젠더 갈등 커져...교육 불평등부터 풀어야. *매일경제*, URL: <https://www.mk.co.kr/news/world/10598231>
- 김미리, 이선희, 정순돌 (2020). 연령주의가 세대갈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 노인차별과 미디어 이용시간의 상호작용 효과. *한국노년학*, 40(6), 1109~1127.
- 김민지 (2022, 12월 28일). [그래픽] 노년부양비 전망. *연합뉴스*, URL: <https://www.yna.co.kr/view/GYH20221228001500044?input=1363m>
- 김옥 (2002). 억압의 한 형태로서의 노인차별주의(Ageism): 사회복지적 대응과 함의. *사회복지정책*, 14, 97~118.
- 류원식, 이준웅 (2017). 도덕기반이 정치이념, 정치적 의견표명, 관용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학보*, 61(5), 491~525.
- 박윤경, 이은주, 류상희 (2016). 성인의 노인 접촉 경험과 노인에 대한 태도의 관계 연구: 충북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1(2), 81~109.
- 박종우 (1999). 한국사회의 연령주의(Ageism)와 노인문제. *사회과학*, 11, 51~68.
- 박진수, 이민영 (2019). 대학생들의 SNS 정치참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구: 도덕기반 신념의 조절적 역할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6(2), 5~41.
- 백영민, 안수찬, 김위근 (2019). 언론수용자의 언론인 접촉경험과 언론신뢰: 언론인접촉-언론신뢰 가설에 대한 실증 테스트. *한국언론학보*, 63(5), 119~151.
- 성경룡 (2015). 세대균열과 세대연대. *한국사회복지학*, 67(4), 5~29.
- 신경아, 최윤희 (2020). 혐로(嫌老)사회: 뉴스 댓글에 나타난 노인인식과 공공PR의 과제. *광고학연구*, 31(6), 93~128.
- 안순태, 강한나 (2018). 소셜미디어를 통한 노인에 대한 간접 접촉이 노인 차별에 미치는 영향: 노인 낙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광고PR실학연구*, 11(3), 7~29.

- 안순태, 이선영, 정순돌 (2017). 매체를 통한 노인접촉경험이 연령주의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규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7(3), 763~781.
- 오민정 (2019). 23년간(1996~2018) 국내학술연구의 '고령' 키워드로 살펴본 빅데이터 분석. *경영학연구*, 48(2), 515~532.
- 오현정, 김정환 (2021). 뉴스 기사 속 노인의 특성 및 기사의 논조가 노인 태도, 정서, 그리고 고령친화정책에 대한 태도와 지지의도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통제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23(3), 313~350.
- 오현정, 신경아 (2019). 한국 언론은 '노인'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2010년 이후의 노인 관련 언론 보도 특성 분석. *홍보학연구*, 23(4), 40~68.
- 원영희, 한정란 (2019). 세대갈등과 세대통합에 대한 고찰: 노년교육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노년교육연구*, 5(1), 63~85.
- 이금룡 (2019). 노인자원봉사 활동과 지역사회 역량에 관한 지역사회 소속감 매개효과 연구: 보건복지부 노인전문자원봉사 지원사업 참여노인들을 대상으로. *한국노년학*, 39(1), 73~92.
- 이보배 (2022, 9월 2일). 아침마다 노인요양원 찾아가는 日 아기들...대체 무슨 일? *한국경제신문*, URL: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90279667>
- 이선희, 김미리, 정순돌 (2019). 청년세대의 연령주의 유형화 및 연령주의 유형과 세대갈등? 노인복지정책 인식의 관계. *한국노년학*, 39(4), 825~846.
- 이은자, 최유미 (2016).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로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노인자원봉사자의 주관적 인식연구: Q방법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8(2), 143~173.
- 이지연, 고동우, 최경찬 (2021). 폰대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9), 164~175.
- 이지연, 한경혜 (2017).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노화불안이 노인과의 시공간 공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51(2), 1~30.
- 이현주, 송민경 (2021). 서울·경인지역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연구-장애요인 및 실천적 대안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4), 576~590.
- 이희성, 권순호 (2020). 초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노동법논총*, 50, 1~29.
- 정순돌, 송아영, 전체상 (2015). 복지태도와 연령주의에 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70, 245~266.
- 정순돌, 임정숙, 홍영란, 박난숙, 최성문 (2018). 세대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령집단 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8(1), 125~142.

- 정순돌, 정주희, 김미리 (2016). 연령주의와 연령통합이 세대갈등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8(4), 5~24.
- 정영효, 강진규 (2022, 11월 13일). '노인대국' 치닫는 韓 2030년 日 넘어선다. *한국경제신문*, URL: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111356481>
- 조인숙, 김도연 (2017). 대학생의 노인 관련 미디어 관심도, 노인 이미지 및 정서와 노인 대상 행동 의향. *한국방송학보*, 31(3), 248~281.
- 지은정 (2018). 우리나라 연령주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URL: https://www.kordi.or.kr/cws/board/board.do?mode=download&bid=248&cid=51295&filename=51295_201804111024175420.pdf
- 최미연, 이형석 (2021). SNS 공공캠페인 참여의도 향상을 위한 연구: 시민참여 중심의 온라인 액티비즘을 중심으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4(4), 90~119.
- 최선 (2020). 한국 청년세대의 정치적 대표성과 정치참여. *대한정치학회보*, 28(4), 271~294.
- 최유석 (2014). 세대간 연대의식의 기반. *한국인구학*, 37(4), 61~87.
- 최유석, 오유진, 문유진 (2014). 대학생의 세대연대 인식.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353~1374.
- 최유석, 오유진, 문유진 (2015). 대학생의 노인세대 인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5), 228~241.
- 최혜지, 이형미, 정순돌 (2018). 연령통합적 사회구축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의 중요도 분석. *노인복지연구*, 73(1), 9~30.
- 하태희, 이은영 (2021). 노인 차별 태도의 영향요인에 대한 세대 간 비교: 간호대학생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32(3), 515~531.
- 함재봉, 손경희 (2020).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빈곤과 노인복지정책: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22(3), 135~151.
- 황선재 (2022).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 자원배분을 둘러싼 세대간 형평. *사회과학연구*, 33(2), 149~172.
- Aaker, J., Vohs, K. D., & Mogilner, C. (2010). Nonprofits are seen as warm and for-profits as competent: Firm stereotypes matte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7(2), 224~237.
- Ajzen, I. (1985). From intentions to actions: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Action control* (pp. 11~39). Springer, Berlin, Heidelberg.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Allport, G. W., Clark, K., & Pettigrew, T.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Bagozzi, R. P., & Yi, Y. (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6*(1), 74-94.
- Bagozzi, R. P., Yi, Y., & Phillips, L. W. (1991). Assessing construct validity in organizational research.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21-458.
- Brambilla, M., & Leach, C. W. (2014). On the importance of being moral: The distinctive role of morality in social judgment. *Social Cognition*, *32*(4), 397-408.
- Brambilla, M., Rusconi, P., Sacchi, S., & Cherubini, P. (2011). Looking for honesty: The primary role of morality (vs. sociability and competence) in information gathering.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1*(2), 135-143.
- Brambilla, M., Sacchi, S., Rusconi, P., Cherubini, P., & Yzerbyt, V. Y. (2012). You want to give a good impression? Be honest! Moral traits dominate group impression forma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1*(1), 149-166.
- Butler, R. N. (1969). Age-ism: Another form of bigotry. *The Gerontologist*, *9*(4_Part_1), 243-246.
- Butler, R. N. (1980). Ageism: A foreword. *Journal of Social Issues*, *36*(2), 8-11.
- Cha, J. (1994). Partial least squares. *Adv. Methods Mark. Res*, *407*, 52-78.
- Constantin, A. A., & Cuadrado, I. (2020). "We believe, we feel, we act": Testing the BIAS Map prediction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50*(1), 22-32.
- Cuddy, A. J., Fiske, S. T., & Glick, P. (2007). The BIAS map: Behaviors from intergroup affect and stereotyp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4), 631.
- Dijkstra, T. K., & Henseler, J. (2015). Consistent partial least squares path modeling. *MIS Quarterly*, *39*(2), 297-316.
- Fiske, S. T., Cuddy, A. J., & Glick, P. (2007). Universal dimensions of social cognition: Warmth and competence.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1*(2), 77-83.
- Fiske, S. T., Cuddy, A. J., Glick, P., & Xu, J. (2002). A model of (often mixed) stereotype content: Competence and warmth respectively follow from perceived status and compet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6), 878.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Algebra and statistic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3), 382~388.
- Fraboni, M., Saltstone, R., & Hughes, S. (1990). The Fraboni Scale of Ageism (FSA): An attempt at a more precise measure of ageism. *Canadian Journal on Aging/La Revue Canadienne du Vieillessement*, 9(1), 56~66.
- Geisser, S. (1974). A predictive approach to the random effect model. *Biometrika*, 61(1), 101~107.
- Graham, J., & Haidt, J. (2012). Sacred values and evil adversaries: A moral foundations approach. In M. Mikulincer & P. R. Shaver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morality: Exploring the causes of good and evil* (pp. 11~31).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Graham, J., Haidt, J., & Nosek, B. A. (2008, July). *The moral foundations questionnaire* (full version). URL: <https://moralfoundations.org/questionnaires/>
- Graham, J., Haidt, J., & Nosek, B. A. (2009). Liberals and conservatives rely on different sets of moral found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5), 1029.
- Haidt, J., & Graham, J. (2007). When morality opposes justice: Conservatives may have moral intuitions that liberals may not recognize. *Social Justice Research*, 20(1), 98~116.
- Haidt, J., & Joseph, C. (2004). Intuitive ethics: How innately prepared intuitions generate culturally variable virtues. *Daedalus*, 113(4), 55~66.
- Hair, J. F., Hult, G. T. M., Ringle, C. M., & Sarstedt, M. (2022). *A Primer on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LS-SEM)*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Useful.
- Hair, J. F., Risher, J. J., Sarstedt, M., & Ringle, C. M. (2019). When to use and how to report the results of PLS-SEM. *European Business Review*.
- Henseler, J., Ringle, C. M., & Sarstedt, M. (2015). A new criterion for assessing discriminant validity in variance-bas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43, 115~135.
- Jansson, J., & Dorrepaal, E. (2015). Personal norms for dealing with climate change: Results from a survey using moral foundations theory. *Sustainable Development*, 23(6), 381~395.

- Neves, J., Pestana, J., & Giger, J. C. (2022). Applying the Stereotype Content Model (SCM) and BIAS map to understand attitudinal and behavioral tendencies toward the conservation of sharks. *Anthrozoös*, 35(3), 371~391.
- Quattrone, G. A., & Jones, E. E. (1980). The perception of variability within in-groups and out-groups: Implications for the law of small numb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1), 141~152.
- Schiappa, E., Gregg, P. B., & Hewes, D. E. (2005). The parasocial contact hypothesis. *Communication Monographs*, 72(1), 92~115.
- Scott, M. L., Mende, M., & Bolton, L. E. (2013). Judging the book by its cover? How consumers decode conspicuous consumption cues in buyer-seller relationship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50(3), 334~347.
- Shim, K., Cho, H., Kim, S., & Yeo, S. L. (2021). Impact of moral ethics on consumers' boycott intentions: A cross-cultural study of crisis perceptions and responses in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Singapore. *Communication Research*, 48(3), 401~425.
- Stone, M. (1974). Cross-validators choice and assessment of statistical prediction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B (Methodological)*, 36(2), 111~133.
- Werts, C. E., Linn, R. L., & Jöreskog, K. G. (1974). Intraclass reliability estimates: Testing structural assumption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34(1), 25~33.

최초투고일: 2023년 1월 31일 • 심사일: 2023년 3월 5일 • 게재확정일: 2023년 3월 20일

Abstract

Exploring Influential Variables for Enhancing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With Stereotypes of the Elderly Generation, Emotions, Moral Foundations, Ageism, and Media Contacts*

Yushu Sun**

Doctoral Student, Dept. of Advertising & Public Relations, Hanyang University

Jeongeun Kim***

Doctoral Student, Dept. of Advertising & Public Relations, Hanyang University

Mijeong Han****

Professor, Dept. of Advertising & Public Relations, Hanyang University

Based on the BIAS Map (Behaviors from Intergroup Affect and Stereotypes Map),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antecedents of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by utilizing variables such as stereotypes and emotions toward the elderly, Korean moral foundations, ageism, and media exposure.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301 adults aged 20 to 59 years, revealing that ageism and media exposure significantly influenced stereotypes (competence and warmth) and emotional responses (empathy, respect, envy, and disgust) toward the elderly. Emotional responses toward the elderly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including perceptions of intergenerational conflict, perception of the contributions of the elderly, and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Moral foundation variables such as injury prevention, opposition to discrimination, and rejection of hatred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erception of the contributions of the elderly. Based on these results, practical suggestions for policy communications and public education were discussed.

KEY WORDS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 Generational conflict *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 Contribution of the elderly * Stereotypes * Emotions * Media contact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of Hanyang University (HY-2021-G).

** First Author, yushu@kakao.com

*** Co-Author, kimje114@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mjhan909@hanyang.ac.kr